“불교계, 이제부터 문화재 기금 조성을”

간송 국보 경매 논란, 문화재계 원로에 듣다

김종규 삼성출판박물관장 · 문화유산신탁 이사장



국보 등 지정문화재 상속세 면제
稅납부 위한 매매 막고자 만들어
간송 전형필 업적 무시 안 될 일

경매 문화재 다수가 불교문화재
중요 문화재 구입 위한 기금 필요
신도 운동 가능… 佛心 증장 도움

문화유산 수집 콜렉터 역할 중요
소장 문화재 양성화해 지정시켜야
문화재 기증하는 기업문화 조성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새해 벽두 문화재계의 이슈는 단연 간송미술관의 국보 불교문화재 경매 출품이다. 간송미술문화재단(간송미술관)은 1월 14일 국보 ‘계미명금동삼존불입상’과 ‘금동삼존불감’을 경매업체 케이옥션의 경매에 올렸다. 하지만 1월 27일 이뤄진 케이옥션의 경매에서 두 국보는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잡음이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국보 ·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상속세가 면제되는데 이를 고가로 경매에 내놓은 것이 타당한가’라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1월 26일 만난 문화재계 원로 김종규 삼성출판박물관장(문화유산신탁 이사장 · 한국박물관협회 명예회장)은 이 같은 논란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말머리를 풀었다.

“간송 전형필(1906~1962) 선생께서는 일제강점기 국외로 유출되거나 사람들이 몰라 불쏘시개로 사라질 뻔한 귀중한 문화재를 혜안을 갖고 수집 · 보존한 위인입니다. 그 자손들도 문화 · 교육사업 이외에는 뚜렷한 영리사업을 하지 않았어요. 재원이 많지 않으니 3세대에서는 재정난이 올 수 밖에 없습니다. 3대에 걸쳐 간송의 가문 사람들은 우리 문화재들을 지켜왔습니다. 그런 공로를 인정하지 않고 ‘상속세’를 운운하며 비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김 관장은 “상속세법에 관련한 일반의 오해가 많다”고 주장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에 따르면 국보 ·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국보 · 보물 문화재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상당한 세금이 부과되고 이로 인해 문화재들이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김 관장의 주장이다.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상속세를 비과세로 두는 것은 세금 때문에 문화재들이 무분별하게 시장에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선친이 물려준 중요한 문화유산들을 후손들이 잘 보존 · 관리하라는 취지도 담긴 것이죠. 이를 시세차익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일방적으로 간송가를 몰아붙이는 것은 너무 혹독한 비난입니다.”

그러면서 김 관장은 “간송 전형필 선생 같은 눈 밝은 문화유산 수집가(콜렉터)가 지속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화재를 보는 안목은 학교 교육만으로 길러지는 것이 아니며, 좋은 스승 밑에서 꾸준히 문화재를 접하며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위 “사기 몇 번 당해봐야 비로소 알 수 있다”고도 했다.

“미국 탐사보도 전문가이자 국립인문재단 펠로 연구원인 니콜라스 A. 바스베인스(Nicholas A. Basbanes)는 역사 속 책 수집가들을 추적해 책으로 냈는데 책 제목이 〈젠틀 매드니스(Gentle Madness)〉였습니다. 책 제목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점잖은 광기’인데 수집가들의 일면을 보여준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집가는 일정부분 미쳐야, 무서울 정도의 ‘점잖은 광기’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간송 전형필 선생은 위창 오세창 선생에게 배우면서 안목을 키웠고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문화재가 해외로 반출되거나 무지해서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평생을 노력했죠. 우리 사회는 제2, 제3의 전형필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간송 국보 경매 출품에 대한 일련의 문제를 접하며 자칫 ‘선한’ 문화유산 수집가들의 원력에 흠집이 가는 것을 김 관장은 경계했다. 도리어 수집가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그들의 문화유산이 양성화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도록 도와야 한다고도 했다.

“좋은 문화재들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이유는 국가에서 책임지고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간송이 내놓은 국보가 설사 개인 수집가에게 돌아가도 국보로 지정된 만큼 문화재청은 정기적으로 어떻게 보존 · 관리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합니다.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이죠. 문화유산 수집가들이 소유하고 있는 좋은 문화재들이 많습니다. 이를 양성화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그들의 문화재들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신실한 불자인 그는 불교계를 향한 제언도 내놓았다. 바로 ‘불교문화유산 기금’ 제정이다. 중요한 불교 문화유산이 시장에 나올 경우 구입할 수 있도록 종단적 · 범불교적 기금을 제정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기금 조성운동은 불자들의 불심 증장과 신심 고취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실제, 2020년 간송미술관은 보물 ‘금동여래입상’과 ‘금동보살입상’을 케이옥션에 출품했다. 거슬러 올라가면 2015년 서울옥션에서 보물 ‘청량산괘불탱’이 출품돼 35억 2000만 원에 낙찰됐으며, 같은 해 서울옥션에서 보물 ‘의겸등필수월관음도’가 18억 원에 낙찰됐다. 보물 ‘청량산괘불탱’의 경우 보물만이 아니라 기존 문화재 경매 거래 최고가 기록이기도 하지만, 낙찰 전 소유주가 문화재은닉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권 모씨여서 뒷말이 무성했다.

이외에도 보물 〈묘법연화경〉 권4-7’ ·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권3’ · 〈월인석보〉 권9 · 10’ 등이 서울옥션에서 출품 · 낙찰됐다. 적지 않은 보물급 불교문화재들이 알게 모르게 꾸준히 거래돼 왔다는 것이다.

“간송의 국보 출품은 이례적 사례이긴 하지만 이 같은 일이 또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죠. 실제 해외 경매시장에서 경매에 나오는 문화재 중 한국의 불교문화재가 출품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이를 불교계로 환수할 수 있는 기금을 종단적 · 범불교적으로 조성하는 운동을 펼쳐야 합니다. 신도회가 중심이 돼 기금을 조성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죠. 이런 자발적 기금 모금 운동은 불자들의 결집과 불심 고취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김 관장은 기업들이 문화재를 구입하고 이를 공공기관 · 박물관 등에 기증하는 문화의 확산도 필요함을 역설했다.

“일본 국립 도쿄 근대미술관의 미술품들 대부분이 일본 기업인들이 해외에서 구입해서 기증한 것입니다. 해외에는 이런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습니다. 한국에도 이젠 이 같은 문화가 확산돼야 합니다. 이런 문화가 확산되면 불교문화재를 구입해 불교 성보박물관에 기증하는 좋은 불자기업인들도 생겨날 것입니다.”

여수 흥국사 담겨있는 조선 불교미술 총망라

국립광주博 ‘여수 흥국사’ 보고서 발간

여수 흥국사가 소장한 조선불교미술 문화재들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보고서가 발간됐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수미)은 “광주 · 전라남도 불교문화재 조사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전라남도 여수 흥국사 소장 불교문화재를 조사한 보고서 〈여수 흥국사〉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여수시 영취산 아래 위치한 흥국사는 고려 후기 고승 보조국사 지눌(知訥, 1158~1210)이 초창(初創)한 후 여러 차례의 중건을 거쳐 조선 후기에 흥성한 사찰로, 국가지정문화재 10건을 비롯하여 조선 후기 불교미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많은 문화재들을 소장한 곳이다.

이들 문화재에 대해서는 지난 1971년 국립중앙박물관이 주요 불교회화를 중심으로 처음 조사를 실시하였고, 국립광주박물관은 첫 조사가 이루어진 지 50년 만인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본격적인 조사사업을 추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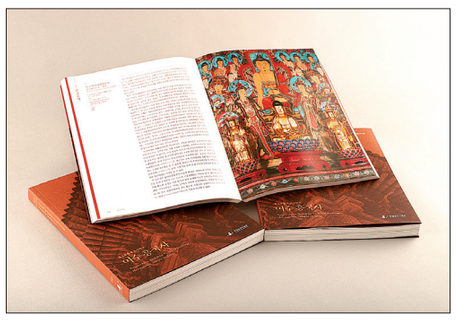
이번 사업에서는 흥국사의 주요 건축을 비롯한 불교회화, 불교조각, 공예, 석조미술, 서지와 전적, 목판류를 포함한 총 150건 812점의 문화재를 종합적으로 살피는 심층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관내 · 외부 전공자들로 구성된 8명의 조사위원과 4명의 자문위원이 8개월간 현지 조사 및 분석작업을 담당했다.

보고서는 1장에서 조사사업의 개요를 소개하고, 보고서 수록 문화재를 중심으로 흥국사의 연혁과 중건을 다루었다. 2장에서는 조사 대상 문화재 중에서 역사 · 미술사적 가치를 지닌 81건 568점을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특히 비문 · 상량문 · 발원문의 번역을 추가해 흥국사 소장 문화재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를 도출했다. 이번 조사성과는 올해 5월 개최 예정인 국립광주박물관 특별전 ‘남도문화전Ⅶ-여수’에 반영될 예정이다.

국립광주박물관은 “지역 소재 불교문화재의 조사연구 및 보존과 홍보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이번 조사보고서 발간이 흥국사의 오랜 역사와 뛰어난 불교미술을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국립광주박물관 학술총서 제74책 〈여수 흥국사〉 보고서는 전국 주요 국공립 도서관 및 유관기관에 배포되며, 박물관 누리집(gwangju.museum.go.kr)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신성민 기자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오직 호흡뿐 = 호흡의 물리가 터짐 = 제6차크라 열림 = 전기뱀장어의 몸 = 기공의 대가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를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예약) : ☎ 010-5282-7292 ■ 등록번호 : 138-50-00260
강남구 논현동 – 기공소리 통증치유명상센터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모든 통증 치유’
기공의 대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사)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대학장 / 대학원장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나란다삼장불교대학
강원 교육
학 장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원서교부 | 2022년 1월 부터
개 강 | 2022년 3월 2일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서무선 박사님 외
불교예술대학
범패 · 작법무
교 수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 에서는 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 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시련 · 대령 · 관욕
수업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22년 3월 8일 오후 3시
고등강원내
승가교육(전문강의)의 일환으로 집중교육을 실시합니다.
개강일시 | 2022년 3월 10일 (목)
장 소 | 제천 금강사 (코로나19로 비대면 영상강의 “줌”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교육내용 | ① 화엄경 : 활안큰스님 ② 대승불교사상 : 서무선 법사님 ③ 절 요 : 혜림스님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43가길 6 | www.kumgangnet.com | 금강선원 사무국 02)969-2410, 969-4981